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7월 5일 (제80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칠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공짜 좋아하지 말라

공짜는 한마디로 상대를 폐인으로 만들며, 그 사람의 삶을 멸망의 포구, 즉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의 속성이다. 속지 말라. 공짜는 쥐뿔이 달려있고 사기꾼의 어미요, 마약의 형제요, 도적의 친구며, 너를 감옥으로 인도하는 무임 승차표다.

자녀에게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비빔밥을 먹어보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자와는 삶을 논할 수 없다. 그리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도 교육했다. 유태인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공짜만 바라는 거지와 도적놈을 만든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세상을 잘 살려면 노력이란 연장을 다루며 무더진 연장을 갈게 하라. 머리가 게으르고 녹슬면 손발이 고생한다. 즉 자손이 대대로 고생한다. 부지런히 대가를 치르고 배우게 하라. 녹슬지 않게 항상 쉬지 말고 부지런히 갈고 닦게 하라.영·훈·육을! 이것이 꼭짓점, 산위에 있는 동네 사람이 되게 하는 성공의 길이다. 늙어서 눈물의 향아리 되지 않으려면 자녀를 교육시켜라. 교육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한다. 공짜는 마약이요, 너를 게으른 폐인으로 만들어 죽이는 독약이다. 이제 공짜면 양껏물도 먹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불살라 버리자. 후손의 영광을 맛보려면! 다시 말한다. 공짜는 당신의 자녀를 폐인으로 만드는 기계요, 마귀의 전술이다. 명심하고 속지 말라. 공짜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단, 사명, 봉사, 구제는 공짜와 다르다. 마땅히 도울 노약자에게 교육, 구제,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자신과 사회를 밝게 하는 빛과 소금이다. 마땅히 멋진 박수와 상 받을 주님의 가르침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6 · 25 평화통일 기도성회

6·25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되는 지난 6월 2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우리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가졌다. 체육관은 통일을 염원하는 자들로 입추여지 없이 가득했다. 저마다 손에 든 태극기는 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김근철 목사의 색소폰 연주, SOL트리오와 남이슬 밴드의 ‘통일이여 오라’, 성가대의 ‘예수 믿으세요’와 현진욱 권사의 ‘주기도’ 찬양까지 그야말로 은혜가 넘쳤다.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으니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날 강사로 서신 이초석 목사님은 ‘하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제반사를 다 준비하신 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준비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요14:3). 그러니 우리가 준비함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고 싶어

해야 통일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도착점에 빨리 가나 내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첫 경기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도중에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토끼가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경기를 하되 진 자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자고 거북이가 제안을 합니다. 토끼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해서 재경기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토끼의 승리였습니다. 약속대로 진 거북이가 제안을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삼세판 하자고, 그것도 강에서 경기를 하자고. 토끼가 보니 승산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에서는 거북이가 업



6·25 평화통일 기도성회(2015.6.25,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나님도 준비하셨다. 우리도 부지런히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통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서독의 경제는 세계 3위였고, 동독은 13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일이 되니 동독 경제의 회복과 동서독 주민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졌던 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여 한 때 독일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평화통일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겠지요. 그릇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관용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통 큰 자가 되어 그들을 안아야 하고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원수가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동시켜 대화의 장소로 이끌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감동시켜 무릎 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 통일된 조국입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을 접고 그들과 대화

고 가고, 육지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뛰자고, 그러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고, 열방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계속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나라는 머지않아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이제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단단한 벽을 허무는 것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아니겠는가.

신영서
jesus7857@gmail.com

6.25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평화통일은 옵니다. 朋友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겔8:1~18)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왜 범죄가 어두운 뒷골목에서, 밤에 자주 일어날까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는 시곗말로 때 빼고 광내고 나가면서 집에서는 엉망으로 하고 있을까요? 역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1992년의 일입니다.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청계산에 오르면서 작정기도를 할 때입니다. 당시 전도단 본부에 머물고 있을 때라 청계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전도단 맞은 편 목욕탕에 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거기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 때 성령께서 저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말끔히 치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화장실이 그리 더러웠을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맘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안 볼까요? No, 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외모는 안 보시지만 마음, 곧 중심은 보십니다. 그것도 자세히, 늘 보십니다. 침 삼킬 틈도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욥7:19).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 분명 예수님과 나다니엘은 첫 대면이었고, 아직 대화 한 번 나뉘보지 않은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의 속까지 완전하게 읽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마음만 보신 걸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인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때로부터 6년 즈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 본 유다 백성은 한 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 장로들과 백성들까지 사람이

만든 신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나무나 돌 등과 같은 자

연물로 부터 곧 충과 같은 피조물까지 숭배하고 있었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풍년을 가져다준다는 바알과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전에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자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금홍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겔8:18).

이제 우리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듯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 속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은 그럴싸한 크리스천이지만 속은 세상의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탐욕과 시기, 불의와 음란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을 질타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질타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펴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 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렘17:9~11).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의 속을 청소해야 합니다. 목사가 집에 심방만 간다고 해도 심지어 도배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던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성령으로

로 오시는데 속을 대청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속의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결국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세상의 것들, 죄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 며칠만 안 해보세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정원을 1년만 방치해 보세요. 썩대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최악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회개함으로 내 속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마5:8).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성과가 없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원인도 있을 터, 열왕기하 2장을 봅시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 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

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좇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찌니라 하셨느니라”(왕하2:19~21).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 여러고의 물 문제가 닦혔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물의 근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원지로 가서 물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좋아져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신 삶에 열매가 없을 때도 근원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원지는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거기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이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이 부패되지 않게 해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아무리 크게 외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을 대청소합시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기도와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지킴이는 오직 내 자신이다

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23:27).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탐욕과 불의와 음란이 가득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만을 의식하는 그들의 허영에 차고 위선적인 신앙에 독설이라 할 만큼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볼까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행5:3).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속속히 보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을 위하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 나다니엘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나다니엘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한걸음의 노력

자폐스펙트럼을 치료한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가족이었는데, 근처에 침 치료와 한약치료를 받을 곳을 알아보다가 버스에 ADHD, 자폐증, 치매가 적힌 한의원 광고를 보고 오셨다고 했다.

처음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침 치료를 하려는 순간, 아이의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를 침대에 강제적으로 눕히더니 아이 뒤에서 두 다리로 아이 다리를 제압하고, 양손으로 두 아이의 팔을 잡고 침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흥분한 상태였다. 그 뒤로도 항상 아이는 제압한 상태에서 침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대로는 치료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침 치료와 더불어 정신분열증이나 불안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황련해독탕이라는 한약처방을 하였지만, 쓴 맛에 아이는 한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치료가 종료되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폐증을 치료하려고 내원하는 환자들은 부모님과 가정상황과 가족에 대한 케어를 통하여 부모님들께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폐증은 현대의학으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겠다는 의지와 믿음으로 꾸준히 오랜 기간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효과가 미진하면 또 다른 치료를 받으려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불신이 쌓여 한계를 규정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외국에서는 행동수정치료들이 효과를 보

인다는 사례들이 있지만, 행동수정의 단점은 자폐증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치료를 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약물치료 또한 문제행동이 심할 때 정신분열증에 사용하는 리스페리돌이나 zip 중이 부족할 때 각성제 종류의 약이 전부였고, 언어를 발달시키거나 운동신경을 치료하거나 강박증을 줄여주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연구개발이 안되어 있다 보니 답답하여 근거 없는 치료방법에 매달리지만, 스트레스에 민감한 자폐증 아이들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자폐증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은 비슷하다. 암이나 다른 병처럼 수술이나 약으로 완치가 될 수 있다면 치료하여 고치면 되지만, 자폐증은 완치가 없는 질환으로서 평생 케어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 자신이 노쇠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남겨진 아이는 그 누가 본인처럼 케어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8년간 수많은 연구와 치료를 통해 실패하고 도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아직도 성과가 미비한 환자가 있으면 좌책감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한 우울과 자책, 회개의 통로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경제적 타격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 후에야 자폐증에 대해서 딱 한 개씩 깨닫게 해주신다. 그 하나가 수년간 쌓이고 쌓여서 자폐증을 조금은 더 이해하고, 수많은 실패를 피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을 줄 수 있는 노하우가 되어감을 본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마음속에 있는 신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만 또한 역사서이기도 하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요나가 나온다. 옛 선지자 요나의 무덤은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에 있었다. 지금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년에 이슬람 국가(IS)가 모술을 점령한 뒤, 요나의 무덤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파괴한 요나의 무덤터에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조직으로 출발한 IS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독교인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개종을 거부하면 부모와 자녀를 모두 참수하였다. 또한 여성은 강제로 신부로 삼거나 성노예로 팔아버리는 등 짐승도 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마7:20)는 말씀대로 IS는 사탄의 세력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IS에도 굴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도 있다. 성 마태 수도원의 3명의 수도사들과 6명의 학생들은 IS로부터 고대 수도원을 지키기 위해 피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IS 앞에서 기독교인임을 시인하고 순교자가 되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은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고 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IS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증거를 없앴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진정한 요나의 신앙과 그의 간증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증거를 없앴다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IS에게 핍박받으면서도 마음 속 믿음을 증거하려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To Be Succeed::

내부고객을 만족시키면 성공한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고객 만족 이전에 내부고객, 즉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상향 조정되어 사기가 높아지면 매출은 자연히 상승한다는 이론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바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Starbucks)다. 각국 현지 매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employee(고용인)의 개념이 아닌 partner(동료)로서 존중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하워드 쉘츠 회장의 예상은 적중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도를 이겨낸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일례로 한 매장에서 직원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워드 쉘츠 회장이 직접 찾아가 그 매장을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기부했다. 이 사건은 ‘사람’을 중시하는 하워드 쉘츠의 경영 마인드에 진정성을 더할 뿐 아니라 세간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국내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유사한 효과

를 톡톡히 본 바 있다. 20%가 채 되지 않는 여직원들을 위해 ‘가족친화정책’을 써서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복지를 강화, 출산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직률까지 낮추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량과 매출이 급상승한 것은 물론이다. 매사마골(買死馬骨), 선시어외(先始於隗). 천리마를 구하는 어느 왕의 관리가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더니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한 이들이 몰려들어 천리마가 순식간에 세 필이나 모였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이 말은, 곧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접해야 멀리 있는 인재들이 몰려온다는 뜻이다. 결론은 ‘사람’이다. 특히 내게 가까이 있는 이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에 잘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를 세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까운 이, 즉 나의 ‘내부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이라는 인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사례다. 그는 처음 야곱에

게 품삯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원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는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7년을 더 일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재산이 이전보다 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야곱에게 인색했다. 결국 그는 야곱의 꾀에 넘어가 좋은 양떼와 염소 떼를 모두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야곱은 물론 온 식구를 떠나보내는 결과를 맞고야 말았다.

잘 알려진 삼국지의 영웅 유비는 실상은 승리보다 패배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성공한 인물로 인정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마음’으로 인재를 얻은 것이다. 천하의 지략가 제갈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가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인 ‘삼고초려(三顧草廬)’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군사가 수없이 많았음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 곁에 있는 이, 내부고객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최근 애플의 새로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이 등록하는 고객들에게 3달 동안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 창작자들에게 아무런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다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항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자 가수는 본인의 이익이 아닌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해 저작권료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가수, 작곡가, 음반 프로듀서들을 위해 SNS로 애플에게 정당한 요구의 편지를 썼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한 그녀의 항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상냥한 말투의 항의편지였다. 그녀는 문장에 존경심을 담아 ‘애플은 성공하고 진보적인 회사이며 예술가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생각을 바꾸기에는 늦지 않았으며 생각을 바꾼다면 모든 음악가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정중히 요구했다. 그녀의 편지가 공개된 후 애플은 생각을 바꾸고 ‘애플 뮤직’의 무료 사용 기간 3개월 동안 창작자들에게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요즘은 카톡 프로필이나 SNS를 통해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기분을 즉흥적으로 드러내고, 혹은 그 글자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기독교인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 말고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아름다운 말, 향기 나는 언어를 사용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타이페이(Taipei)의 소소한 에티켓

지난 6월 초순,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Taiwan)을 다녀왔다. 한국에 메르스(MERS)가 유행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대만행 국적기는 모두 결항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허둥지둥 떠난 여행길은 잠정적 메르스 의심 환자인 한국인을 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불안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 학회 측 도우미 학생을 만나면서부터 타이페이의 일정은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타이페이의 여정 중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국제학회의 공용어는 한국어였다. “서태평양 한국어교육·한국학 국제 학술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한국학 관련학자들 50여 명이 오순도순 모여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즐겁고 짜릿한 경험이었다.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한국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기도 하

지만, 국내외의 국제학술대회를 참가할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학회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저녁 만찬에서 절친이 되어버린 중국 문화대 학생들과 비밀리에 약속을 잡고 시내 관광을 가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타이페이의 버스와 지하철을 타러 나갔다. 낯선 환경에 길을 잃을까 무서워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타이페이의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보니 정말 깨끗하고 산뜻한 분위기에 저절로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전철에서 놀랐던 것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전철 내부가 너무 쾌적했다는 사실이다. 대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개찰을 하는 순간부터 지하철역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벌금이 10,000원(한화 400,000원)인데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 내에서는 물이나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신기했던 점은 메르스가 유행하는 한국보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궁금해 물어보니, 감기가 걸렸거나 감기 기운

이 있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2003년 SARS 유행 이후에 생긴 문화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수시로 착용한다고 하였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대만에서 콘서트를 했었고, 그 콘서트를 보러왔던 한국의 여성팬들이 나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 150분의 비행 내내 끝없이 떠들고 소리 지르는 아이돌 팬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쏟은 음식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승무원에게 뒤처리를 부탁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대만의 그 소소한 에티켓이 새삼 떠올랐다. 그 소소한 에티켓이 결국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대, 그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또 새삼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한마디의 말!

“꽃의 향기는 십 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만 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창조의 씨앗이며, 생명의 샘입니다.

‘진심어린 사랑의 말’, ‘힘을 주는 격려의 말’, 그 한마디 말로 인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파괴 시키는 말’, ‘내 힘을 소진시키는 부정적인 말’, 그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은 일생을 암울하게 소극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림에 뛰어난 소질이 있구나!” 유년 시절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화가로 결정하기도 하고, “키 작은 남자는 별로야.” 짝사랑하던 사람의 한마디 말로 인해 평생을 키에 대한 콤플렉스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의 거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점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고, 좋은 것은 모두 내 것인 낭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토록 싫어하는 타인의 말과 행동들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3:2~6).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Good News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영국에서 자유를 몹시 갈망하는 사람들이 프레처 크리스천이라는 지도자를 단장으로 모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건 섬으로 가서 상당수의 원주민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꿈꾸는 작은 공동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뒤에 이 공동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작은 사회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12건의 살인 사건과 폭행 사건

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의 자살이 있었는데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들의 지도자였던 프레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공동체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리고 창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아담즈는 창고 속에서 한 권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두 달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죄를 발견한 그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행복한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즈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자유와 기쁨을 찾았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대형병원 쓸림현상

이번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부실과 의료전반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닥터 쇼핑과 대형병원 쓸림 현상은 메르스 전파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들의 이동경로를 보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며 많은 전파에 일조했다.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의원은 입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병원은 법적으로 입원실에 침대가 30개가 있어야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종합병원은 최소 100병상이 있어야 하고 최소 7개 전문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면 최소 9개 전문과목이 필요하다. 상

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며, 이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전국에 약 40여개소가 있다.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장 흔한 외래 질환은 감기, 기관지염, 편도염, 위염, 본태성 고혈압 등 대부분 흔하지만 중하지 않고 잘 치료되고 조절되는 질환들이다. 이러한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데는 비교적 간단한 시설과 장비만 있으면 된다. 위 중하지 않은 질환일 때에는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 받으면 된다. 동네의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옮

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의원급을 1차 의료기관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있지만, 진료비가 비교적 싼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3차 의료기관은 많은 대기 환자로 오랜 기다림 끝에 5분 진료로 끝나고, 대화를 통한 환자의 상태 점검보다는 피검사와 방사선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감기에 걸린 내가, 기관지염에 걸린 당신이 가기에 적합한 병원은 큰 병원이 아니다. 잔병치레 많은 나를 잘 알고 있는 동네의원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더 적합한 좋은 의사가 아닐까?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